

# 일본지식인층에 의한 조선정체론(朝鮮停滯論) 연구\*

- 비문명화 · 비경제화 · 비합리화를 중심으로 -

이 복 임\*\*

(e-mail : danan01@hanmail.net)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시바 료타로의 비합리화론 |
| 2. 후쿠자와 유키치의 비문명화론 | 5. 맺음말           |
| 3. 후쿠다 토쿠조의 비경제화론  |                  |

キーワード： 停滯論(theory of stagnation), 知識人(intellectual), 非文明化(non-civilization), 非經濟化(non-economization), 非合理化(non-rationalization)

## 1. 머리말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급속하게 근대국가로 성장한 일본은 국학(国学)의 전개와 함께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되었고, 이때 등장한 지식인층에 의한 조선정체(朝鮮停滯)의 논리는 일본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었다. 즉 당시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본 지배층의 조선낙후론과 정체론은 한국사관의 상식으로 자리 잡아 역사왜곡의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사회에 있어서 한국사에 대한 연구는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 부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B5A07047638]

\*\* 한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터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타다 타카시(旗田巍)에 의하면 이 시대의 연구는 총 세 가지 형태로 집약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유학자들에 의한 한국의 주자학(朱子學)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이퇴계(李滉)의 학문을 존경하여 한국사 연구를 시작하였고 하야시 라잔(林羅山),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등에 의해 일본 주자학이 확립되었다. 두 번째는 일본 역사서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을 연구하는 국학자들에 의해서이다. 일본고전연구를 통해서 형성된 조선사상 및 조선관은 막부말기의 ‘정한론’으로 이어지고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의 조선침략·조선 지배에 대한 관념으로 고착화되었다. 세 번째는 일본의 지정학적 논리에 의해 조선인식이 대두되는 해방논자(海方論者)에 의한 연구이다. 이들의 아시아 및 조선인식은 이후 등장하는 자유민권론자들에 의해 아시아관으로 이어지고 있다.<sup>1)</sup> 이렇듯 일본에서의 한국사 논리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에 입각하여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연구되었고, 청일전쟁(1894) 이후에는 「침략삼서」<sup>2)</sup>가 저술됨으로써 식민사관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근대화가 진행되던 1886년 일본제국대학(日本帝國大學)에 사학과(史學科)가 설치되고 2년 후에 개설된 국사과(國史科)에 의해 근대 역사학이 출발하면서부터 한국사관에 대한 본격화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때 대다수의 저서·논문이 발표되었는데, 핵심논제는 주로 한국고대사에 관한 것으로서 에도시대로부터

1) 旗田巍(1973) 「日本人의 韓國觀」 『日本問題』, 일본문제연구소, pp.129-134.

2) 침략삼서(侵略三書)란 『조선왕국(朝鮮王國)』(1896),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1901), 『한반도(韓半島)』(1901)로 한국사를 연구한 저서이다. 『조선왕국』은 을미사변(乙未事變, 1895)에 깊이 관여했던 기쿠치 겐조(菊池謙讓)의 기술로 조선의 3천년 역사는 타락의 의미가 아닌 것이 없다고 서술하며 중국(당·송·명)에서 유입된 문화와 관제(官制)는 무용하고 부패하여 무수한 악패화해(惡敗禍害)를 낳아 국민이 타락하고 쇠망하였다는 혹평을 하고 있다. 이어서 『조선개화사』를 저술한 츠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는 메이지시대의 국가주의자로서 박영효와 함께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내정개혁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일본에 의해 개국된 조선이 독립국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반도국가로서의 의외의 행운이며, 청일전쟁(1894)은 일본이 의병을 일으켜 조선의 독립을 확립시킨 것이라는 타율성론(他律性論)을 근대사와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는 메이지기 일본의 외교관이고 국제법학자인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의 인문경제지리사이자 국제관계서로서 통상관계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과 경제침략을 상론하며 ‘한국은 부원(富源)을 개척할 의지나 자력이 없는 미개반개국(未開半開國)’으로 전제하고 일본의 산업침략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듯 당시 지식인들에 의한 한국사관은 미개·침체성·사대성·반도성·당파성·동조론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조동걸(1990.2) 「植民史學의 成立過程과 近代史 敘述」 『歷史教育論集』, 歷史教育學會, 참조)

터 국학이 환기시켜놓은 과제가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이 시대의 연구는 서양사학에 의한 실증적·합리주의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만열은 당시의 한국사관에 대해 첫째 ‘만선사관(滿鮮史觀)’의 성립, 둘째 ‘타율성(他律性)’논의, 셋째 ‘정체이론’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모든 논리는 한반도에서 외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체성이 결여된 타율성 역사를 지닌 한국사회를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sup>3)</sup> 즉 한반도는 고대로부터 지속적인 왕조의 교체라는 사회의 변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에는 아무런 발전도 끼치지 못하여 계속 전근대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정체성이론이 쟁점으로 되어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국수주의적 성향에 의해 논의된 한국사관은 서양의 근대사학에 근거하여 문헌고증적 방법으로 연구되었고 제국주의국가로 발전하는데 적극 이용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정체이론’은 당시의 한국사회를 근대화시키기 위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필요했었고 식민사관의 발판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조선사회 정체론은 우익논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논의에도 항시 등장하는 한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근대화 이후 조선사회의 정체론을 주장한 지식인층 중에서 일본사회의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계몽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1834~1901, 이하 ‘후쿠자와’로 칭함)와 경제학자 후쿠다 토쿠조(福田徳三;1874~1930, 이하 ‘후쿠다’로 칭함), 문학자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1923~1996, 이하 ‘시바’로 칭함)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논리를 비문명화, 비경제화, 비합리화 라는 시점에서 비교분석해보기로 한다.

3) 李萬烈(1981)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 文學과 知性社, pp.275~285.

4) 일본인의 한국사관에 대한 비판은 위에서 언급한 하타다 다카시, 이만열 외에 김용섭(1963) 「日帝官學者들의 韓國史觀」 『思想界』, 도서출판 思想. / 최석채(1965) 「日本人의 韓國觀」 『新聞評論』, 韓國新聞研究所. / 김영호(1969) 「韓國史停滯性論의 克服과 方向」 『亞細亞』, 亞細亞編輯部. / 송건호(1973) 「日本人의 韓國觀」 『新東亞』, 동아일보사. / 배준상(1974) 「日本人의 韓國觀」 『統一生活』, 대공문제연구소. / 백일(2005.11) 「이영훈 등 뉴라이트의 한국 근대사 식민사관 비판」 『마르크스주의연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등의 논문이 있다.

## 2. 후쿠자와 유키치의 비문명화론

후쿠자와는 일본의 계몽가이자 교육가로 메이지시대에 실학과 부국강병을 강조하여 자본주의 발달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인의 아시아관·한국관에도 그의 사상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크게 작용하였으며 현재에도 일본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명개화 이후 1875년에 발행된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에서 그는 당시의 세계정세 속에서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 ‘1875년 현재, 일본은 아직 개화의 독립국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야할 외국은 자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서구열강이고 이들과 무역을 해도 이득이 없고, 군사력도 충분치 않으므로 일본의 독립보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선과 같은 나라에 「정한론」 등을 주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1870년대만 해도 후쿠자와에게 있어서 조선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sup> 그러나 그의 인식은 80년대로 들어서자 일변하여 1881년에 발행한 『시사소언(時事小言)』에서 시사각각 압박해오는 열강의 위협을 인지하여 중국이나 조선이 먼저 침략당하면 일본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국의 독립보존을 위해서 중국과 조선을 개화로 인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양국과 동맹을 맺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후 1882년 3월에 창간된 일간신문지 「시사신보(時事新報)」에서 ‘조선의 교제를 논한다(朝鮮の交際を論ず)’는 타이틀로 ‘우리 일본의 국력으로 이웃나라의 문명을 돕는다’ 또는 ‘일본국의 유소(類燒)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선의 국사를 간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문명화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언설을 하고 있다.<sup>6)</sup> 더구나 동년 7월에 조선에서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고 1884년 청불전쟁(淸仏戰爭)이 발발하자 후쿠자와는 조선후기의 개화파인 김옥균을 도와 갑신정변(1884.12)을 도모하였고, 그의 의도대로 실현되지 못하자 다음해인 1885년 3월 16일자 「시사신보」에 이른바 ‘탈아론(脫亞論)’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탈아론’은 당시 일본사회가 문명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화가 급선무라는 자각 하에 주장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에 큰 파문을 일으켰

5) 青木功一(1981) 「福沢諭吉の朝鮮人」 『横浜市立大学論叢』, 横浜市立大学, pp.99-100.

6) 위의 논문, 「福沢諭吉の朝鮮人」, p.103.

다. 이 논리는 2,300자 정도의 단문형식의 사설이지만,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후쿠자와 식 아세아관(匪細亞觀)으로 회자되고 있다. ‘탈아론’의 논리는 지배와 차별에 대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상승되어 발전해갔다. 일본이 제국주의시대로 팽창하는데 이론적 출구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였고 지식인층의 한국사관에 후쿠자와의 탈아론적 사고가 여실히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탈아론’은 본질적으로 아시아를 멸시하고 부정하는 사상을 내재하면서 서양열강의 아시아침략에 대해 자국의 국가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다. 후쿠자와는 전술과 같이 근대초기부터 한국과 중국의 근대화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삼국의 연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임오군란으로 청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를 지원하여 그들 스스로 조선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삼일천하의 실패로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자 그의 한국사관은 보다 명백한 멸시감으로 변질하여 ‘탈아론’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에는 구미열강의 동아시아에 대한 급속한 세력 확대 속에서 서양문명을 수용하여 근대화가 되어야만 국가는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즉, 문명화가 되지 못하는 주변 국가를 제외하고 일본이 먼저 근대화를 추진하여 구미 열강의 일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조선을 비롯한 중국 등을 비문명화된 정체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 ① 중국과 조선이 서로 닮아있는 모습은 일본보다 더 비슷하다. 이 두 나라는 일신(一身)에 있어서나 일국(一國)에 관하여 진보의 길을 알지 못하고, 교통이 매우 편리한 세상의 문명을 듣거나 보지 못할뿐더러 이 건문이 없어서 마음의 동요를 느낄 줄도 모르고 그 옛날 풍속과 습관에 연연하는 모습은 천백 년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중략)

오늘날의 도모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의 개명(開明)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부흥시킬 여유가 없다. 오히려 그 대오(隊伍)에서 탈피하여 서양의 문명국들과 진퇴(進退)를 같이하고, 중국(淸)과 조선을 대하는 방법도 이웃 나라라고 해서 특별히 배려를 할 필요가 없고 실로 서양인이 저들을 대하는 식대로 처분하면 그만이다. 나쁜 친구를 사귀는 자는 더불어 오명(汚名)을 피할 길이 없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를 사절해야 할 것이다.<sup>7)</sup>

근대 이전의 일본은 에도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유학자들이 조선학문을 존경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854년 미국페리호의 내항을 계기로 외세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자 이들의 한국사관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와 같은 경제론가(經世論家)는 이미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1755)에서 한반도가 일본국방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자국의 안위를 우려한 자들은 열강에 앞서 아시아를 일본이 영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기에 발맞추어 가쓰 가이슈(勝海舟)를 비롯한 관학자들은 국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한국과 연합해야하지만, 여의치 않을 시는 군사적 공격을 불사한다는 기세가 높아졌다. 더구나 메이지유신의 공로자인 기도 타카요시(木戶孝允)와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에 의해 정한론은 구체화되었고, 당시 중국과 한반도에 대한 서구열강의 진출이 활발해지자 아시아의 위기는 곧 일본의 위기라는 역설 하에 ‘일선동조론’이라는 미명으로 한국과의 합방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탄생한 후쿠자와의 ‘탈아론’은 위의 인용문과 같이 조선과 중국은 문명을 깨닫지 못하는 미개한 국가로 표현하며, 일본은 이들 국가와 인연을 끊고 먼저 근대화를 추진하여 구미 열강의 일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중국을 비롯한 조선을 고풍구관(古風旧慣)에 연연하는 수백 년 전의 고대와 다름없는 정체된 사회로 서술하고 있다. 더구나 서양인들이 조선과 중국을 대하듯이 일본도 그렇게 처분하면 그만이라는 글은 문명의 명목으로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일본이 아시아의 후진국과 관계를 끊고 전진하는 것만이 향후 미래의 길이라는 제시를 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1885년 8월에는 「시사신보」에 ‘조선인민을 위하여 그 나라의 멸망을 경하한다(朝鮮人民のために其國の滅亡を賀す)’의 사설에서 일명 「조선멸망론」을 게재하고 있다.

② 조선국민은 국내에 있어서 사유재산을 지킬 수 없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또 명예를 가질 수도 없다. (중략)

조선국민으로 살아가는 보람도 없으므로 러시아나 영국 등이 와서 국토를

7) 慶應義塾 編(1960) 『福沢諭吉全集 第10卷』, 岩波書店, pp.238~240.  
(이하, 한국어 번역은 논문작성자에 의함.)

영유하는 것에 그대로 맡겨서 러시아나 영국국민으로 되는 편이 행복하다. 타국정부에 의해 멸망한다면 망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앞으로 희망도 없이 괴로운 세계에 침몰하여 평생을 국내외의 치욕 속에서 죽기보다는 도리어 강대 문명국의 보호를 받아서 생명과 사유재산만이라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일 것이다.<sup>8)</sup>

앞서 조선과 중국을 비문명국으로 지칭했던 후쿠자와는 조선에 대하여 위의 문장과 같이 추가 논술하고 있다. 즉 당시의 세계정세 속에서 조선과 같이 전근대적인 상태로는 사유재산과 국민 각자의 생명과 명예 등을 지켜줄 수 없다고 상정하고 차라리 서구열강에 종속되는 편이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자주적 개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강대한 문명국의 점령·보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로 서양열강의 대열에 들어선 일본이 앞장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조선국민이 비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유하기 보다는 일본과 같이 문명국이 된 국가의 보호를 받아서 생명과 사유재산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불행 중 다행이라는 내용은 조선을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표출되고 있는 명백한 조선지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후쿠자와의 이론은 근대 일본인의 사상이나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사후에도 탈아의식은 약화되지 않고 도리어 일본의 발전과 더불어 강화되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지식인층에게 현저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그 중에서 일본경제학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후쿠다 토쿠조에 의해 정체이론이 구체화되었다.

### 3. 후쿠다 토쿠조의 비경제학론

후쿠다는 일본의 경제학을 개척한 경제학자로 사회정책학회의 중심인물이고 민본주의 계몽에 앞장섰던 복지국가론의 선두자이며, 한국경제연구로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다는 평판도 받고 있다. 그는 1897년 고등상업학교(히토츠바시대학교(一橋大学)의 전신)를 졸업하고 독일유학시절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경

8) 위의 책 『福沢諭吉全集 第10卷』, pp.379-382.

제학과 경제사를 배워 서구의 경제학을 일본경제에 도입하여 1900년 『일본경제사론(日本經濟史論)』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일본경제사의 발전과정이 서구와 같은 경과를 거쳐 동양 어느 나라와는 달리 서양과 같은 역사를 지녔다고 논하면서 메이지기 이후 일본의 진보는 단순한 서양문명의 모방이 아니라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했다. 즉, 서양역사의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일본역사를 검토하여 자국의 근대적 발전이 기대된다고 하는 추론을 하였던 것이다. 이후 1902년에는 한국을 여행하며 당시의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이듬해 1903년부터 2년에 걸쳐 『내외논총(内外論叢)』에 「경제발전사 상의 한국의 지위(經濟發展史上の韓國ノ地位)」라는 타이틀로 총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제2편의 「한국의 경제조직과 경제단위(韓國ノ經濟組織ト經濟單位)」는 제1장 ‘경제단위·조직의 발전은 보편적 방향으로 이를 서구에 한정하는 것을 비판(經濟單位·組織の發展は普遍的な方向であり、それを西歐に限定することを批判)’, 제2장 ‘경제조직에 관한 논쟁과 한국의 국체(經濟組織ニ關スル論争ト韓國ノ國體)’, 제3장 ‘한국에 있어서 경제단위의 발전(韓國ニ於ケル經濟單位ノ發展)’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논문은 1915년 『경제학연구(經濟學研究)』에 수정 보완하여 수록되었는데, 당시로서는 근대적인 경제학의 방법론에 의해서술된 한국경제사에 관한 최초의 학술논문으로서 각광받았다.<sup>9)</sup> 주요 논점은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이 일본과 다르며 일본보다는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다는 것으로 한국의 정치조직·사회조직·토지소유관계·상업기구·공업형태 등을 차례로 검토한 후 한국경제의 현저한 후진성과 봉건제도의 결여를 지적했다. 즉, 20세기 초 한국사회의 경제상태는 일본과 서구에 비해 천년이상이나 뒤떨어졌고 아직 봉건제도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기에는 불가결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에 있어서 경제단위의 발전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전래(傳來)되는 것에 의존해야만 한다. 전래란 경제단위가 발전된 경제조직을 지닌 다른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말한다. (중략)

한국의 토지를 개척·경작하여 서서히 이것이 자본화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들은 한국에서 많은 경제적 설비를 설치하고 수천 년간 교류에 의한 양해와 동정으로 한인(韓人)의 사역(使

9) 姜普哲(1987.9) 「停滯性理論 批判」 『韓國史市民講座』, 一潮閣, pp.24~26.

役)에 익숙하여 한인의 토지를 사실상 사유하여 서서히 농업경영을 시도하여 그 생산품인 쌀과 콩의 최대고객인 우리들 일본인은 이 사명이 투철하니 가장 적합한 자가 아닌가. 인간에 대해서 말하면, 한인에게는 없는 용감한 무사정신의 대표자인 우리들 일본민족은... (중략)

봉건적 교육과 여기에 기초한 경제단위의 발전을 아무것도 실현하고 있지 않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하여 그 부패쇠망에 이른 민족적 특성을 근거로부터 소멸시키는 것으로 자신에게 동화시키는 자연적 운명과 의미를 가진 유력우세한 문화의 중대한 사명에 임하는 자가 아닐까.<sup>10)</sup>

위 문장을 보면 한국은 자발적으로 경제적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래되는 문화에 동화되어야하고, 한국의 토지를 자본화하여 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가 일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후쿠다는 서양의 근대사회란 봉건제도에 의해서 탄생되며 그 존재여부에 따라서 근대적 발전가능·불가능이 결정된다는 전제 하에 일본은 서양과 같이 봉건제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근대사회로의 발전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당시 전근대적인 경제생활(고리대금융 등 차금자족경제) 등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있는 상태라고 단정했다. 여기서 유치한 단계란 고대한국의 옛 전통·풍습에 의한 미풍양속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교문화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이 지나친 형식주의에 얽매인 한국을 낡은 전통적 사회로부터 해방시켜서 토지의 사유화·자본화, 노동자와 기업가의 계급분화를 촉진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지녀야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토지와 인민을 해방하여 이들을 자본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여야한다는 식으로 설명해나가고 있다.<sup>11)</sup> 더구나 인용문과 같이 용감한 무사정신을 지닌 일본인이 한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민족이라고 하는 등 강한 우월적 존재감을 내세우며, 경제적 성장이 불가능한 한국을 문명국인 일본인이 구제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 사회의 해체, 민족적 특성의 소멸은 식민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한국을 일본의 지배대상물로 취급하고 있는 그의 주장은 당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반론이 제기되었다. 특히 강상중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내비치기위한 반사경으로서 일본이 아시아일원인 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자가 모

10) 福田徳三(1915) 『經濟學研究』, 同文館, pp.146-147.

11) 위의 책, 『經濟學研究』, pp.145-146.

순적인 노력에 불과하다'고 하며 '후쿠다의 일본봉건제론은 지극히 편파적인 것으로 조선사회의 일면만을 데포르메(déformer)한 형태로 그려낸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sup>12)</sup> 이어서 하타타 타카시 또한 '조선의 흥망을 역사의 필연이라고 간주하여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하는 힘이 없다고 판정하는 동시에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의 힘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sup>13)</sup> 이렇듯 현시점에서 볼 때 후쿠다의 논리는 '탈아론'과 연장선상에 있는 일본판 오리엔탈리즘에 의한 정체성 논리라고 할 수 있지만, 이후의 한국 경제사 연구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후쿠다의 논문을 중심으로 동일한 발상에 입각하여 그가 설정한 문제를 심층 분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 시카타 히로시(四方博), 모리타니 카츠오(森谷克己) 등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한국경제의 정체성이론은 계승·발전되었다.

기타 사다키치는 「일선양민족동원론(日鮮兩民族同源論)」(『同源』1919)에서 3·1운동과 같은 한국인의 독립운동은 한국과 일본의 원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초래된 것이라는 상정 하에 수유상혼적(水油相混的) 불협화를 지양하고 한일 양국민이 동일한 제국신민으로서 혼연일체되어 영원토록 행복을 향유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서 「일한양민족동원론(日韓兩民族同源論)」(『民族と歴史』1920)에서는 한국의 병합은 결코 이민족을 새롭게 결합한 것이 아니라 일시 떨어져있었던 것을 본래대로 복귀시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논리는 '일선동조론'에 기인한 것으로 근대초기 관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식민주의사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카타 히로시에 의하면 한국의 지방경제는 수백 년간 진보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체된 사회라고 설명하며 후쿠다의 논리를 바탕으로 봉건적 결여설을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의 자본주의화는 일본의 자본과 일본인의 기술능력에 의해 지극히 타율적으로 성립했던 것으로, 19세기말 개항당시 한국사회는 자생적인 자본축적도 기업적인 정신도 없이 자본주의형성을 희망하였지만, 이런 것들이 실현될 어떤 조건도 결여된 상태라고 했다. 더불어 시

12) 姜尚中(1987.2) 「福田徳三の「朝鮮停滯史觀」 『季刊 三千里』, 三千里社, pp.84,86.

13) 旗田巍(1983) 『朝鮮と日本』, 勁草書房, pp.73~75.

14) 姜晉哲(1986.7) 「日帝官學者가 본 韓國史의 停滯性과 그 理論」 『韓國史學』, 精神文化研究院, pp.211~218, 재인용.

카타는 한국에 근대화적인 산업과 인프라, 학교나 각종 시설을 세우기위해서는 일본이 진출하여 이들의 문명화를 도와야한다는 정당성을 주장하며 조선침략을 미화시키고 있다.<sup>15)</sup>

이어서 모리타니 카츠오는 일본인 학자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봉건주의가 부분적이거나 미숙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미숙한 봉건주의는 전체적인 것으로 관료주의적인 국가체제로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다만 그 안에 혼입된 형태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체적 관료주의체제가 관개(灌漑)산업의 기본조건으로 되는 치수·수리와 촌락협동체의 고립폐쇄성이라는 2개의 조건에 의거하고 있지만, 동양이나 아시아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진보가 극히 둔화되고 정체적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상태가 되었던 것이라는 언급도 하고 있다.<sup>16)</sup> 그의 정체성이론은 봉건제 결여론을 주장한 후쿠다와 다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동아공영의 이데올로기로서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식민사관임에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이 경제학자들의 봉건제도의 결여, 일본보다 수백 년 뒤떨어진 현저한 후진성, 또는 일선동조론 등에 대한 조선정체론은 패전 이후에도 존속되어 일본사회에서 대중적인 문학작가라고 일컬어지는 시바 료타로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인 한국사관이 부활되었다. 결과적으로 후쿠다가 인식한 한국의 비경제화논리는 후쿠자와의 비문명화의 이론에 바탕을 두며 끈질기게 지속되어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 4. 시바 료타로의 비합리화론

일본이 패전이후 고도성장기 막바지 무렵인 1970년대에 문단이나 학계에서 자국에 대한 새로운 역사인식이 제기되고 있을 때, 역사소설가이자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던 시바 료타로에 의해 한국에 대한 역사관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15) 四方博(1951.10) 「旧来の朝鮮社会の歴史的 성격について(二)」 『朝鮮學報』, 朝鮮學會, pp.165~168.

16) 森谷克己(1964.8) 「朝鮮歷史經過の大要とその諸時代の經濟的社会的構成」 『朝鮮研究』, 日本朝鮮研究所, pp.46~47.

그는 한국과 관련된 역사소설인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1968)을 비롯하여 한국역사기행수필집 『가도를 가다(街道をゆく)』의 시리즈와 좌담회 형식을 빌어 간행된 「한국조선좌담시리즈」 등의 지면을 통하여 한일관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주로 유교문화로 인한 조선정체론을 표방하면서 에도시대 봉건제를 확립한 일본사회와 달리 형식주의에 얽매인 한국사회의 단면을 지적하고 있다. 즉 197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가도를 가다』 중 제2권의 『한국기행(韓のくに紀行)』(1978)에서 유교는 체제로써 꽤 까다로운 형식주의라고 하며 조선시대는 오백년 동안 이 원리를 도입하여 자신의 민족을 길들여버렸다고 서술하고 있다.<sup>17)</sup> 또한 제28권의 『탐라기행(耽羅紀行)』(1985)에서는 12세기 주자(朱子)에 의해 역설된 주자학에 대해 하나의 가치관을 확립시킨 이데올로기학이라고 단언하며 일본은 에도시대 주자학이 관학(官學)으로 수용되어 합리적인 학문으로 정착하였으나, 조선은 주자학의 정통만을 내세우며 다른 사상을 배척했기 때문에 일본보다 뒤처지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8)</sup> 그리고 동시기 고대일본문화의 원형에 대한 연구로 1971년부터 78년까지 약 7년간 우에다 마사아키(上田正昭), 김달수(金達壽)와 함께 연재한 좌담회 형식의 『일본 속의 조선문화(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sup>19)</sup>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유교문명론을 거론하면서 조선정체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① 조선의 경우는 고려시대부터 대정체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정체의 끝마무리를 하는 셈이지요. 그것은 산에 나무가 없게 되자, 철을 중심으로 금속생산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 인간의 호기심이 점차 줄어들게 되지요. 호기심이 희박해져가는 것을 형이상화하기 위해서는 유교가 필요합니다. 유교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정체의 대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sup>20)</sup>

② 조선문화의 특징인 문, 문명주의라는 것이 뚜렷해진 것은 이조중기부터입

17) 司馬遼太郎(1978) 『韓のくに紀行』, 朝日文庫, p.132, p.159.

18) 司馬遼太郎(1990) 『耽羅紀行』, 朝日文庫, pp.103~107.

19) 『일본 속의 조선문화』(講談社)는 1982년에 『일본의 조선문화(日本の朝鮮文化)』 『고대일본과 조선(古代日本と朝鮮)』 『일본의 도래문화(日本の渡來文化)』 『조선과 고대일본문화(朝鮮と古代日本文化)』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발간되었고, 1987년과 88년에 『일한이해로의 길(日韓理解への道)』 『일한 서울의 우정(日韓ソウルの友情)』이 추가로 발행되어 시바의 「좌담시리즈」 전6권으로 완성되었다.

20) 司馬遼太郎 他(1982) 『朝鮮と古代日本文化』, 中公文庫, pp.355~356.

니다. 그것은 다른 면이고 유교주의라는 것으로도 되어 한국사회는 정체적으로 퇴폐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고대로부터 민족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21)

③ 이 시기(센고쿠시대)에 조선은 이조체제로 탄탄한 전제국가로 지속되고 있었지만, 조선이 무기력해진 것은 이 중세적 전제국가 때문입니다. 이조 오백년이라는 중국풍 체제국가만큼 조선인의 활력을 잃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sup>22)</sup>

위의 ①과 ②인용문과 같이 시바는 양국문화의 근원적인 차별성을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유입과정에서 모색했던 것으로, 한국은 제도(사상)로 일본은 학문으로 유교문명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상호 상이한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이 유교라는 체제가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대정체를 초래하고 조선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서술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나무를 제재로 하는 철기문화를 예로 들고 있다. 즉 철기시대 농기구의 발달로 인한 경쟁사회에서 한반도는 무차별한 벌목현상으로 철기생산이 감소하자 사회가 정체되었고, 이때 충(忠)과 효(孝)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유교문화가 유입되자 점차적으로 민족성에 적합한 사상으로 정착하여 유교사회가 되었다는 논리이다.<sup>23)</sup> 이렇듯 고대로부터 발달된 철기문화와 중세의 봉건제확립에 따른 정치제도, 18세기 쇠국정치형태의 관점에서 양국 사회현상을 설명하며 형식주의와 합리주의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③에서는 조선을 중세적 전제국가라고 하며 중국풍 체제국가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앞서 후쿠자와의 「탈아론」에서와 같이 비문명화된 사회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조선과 같이 유교문화권의 사회는 비문명일 수밖에 없다는 상정 하에, 일본과 같은 합리적인 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다고 하는 내셔널리즘적인 시바사관(司馬史觀)이 완성되고 있다. 더구나 청일·러일전쟁(1904)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언덕위의 구름』에서는 ‘이(李)왕조는 이미 오백년이나 계속되어온 질서가 노화되었기 때문에 한국자신의 의사와 힘으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능력은

21) 司馬遼太郎 他(1987) 『日韓理解への道』, 中公文庫, p.115.

22) 司馬遼太郎(1976) 『歴史の中の日本』, 中央公論新社, p.71.

23)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복임(2013.5)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작품에 나타난 한일관계론 -유교문화의 수용과 변용을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한국일본문화학회, 참조.

전무하다고 해도 좋다.’<sup>24)</sup> 고 서술하며 조선을 무기력한 유교사회로 표명하고 있다. 이어서 1983년에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에 걸쳐 동경·히비야공회당(東京·日比谷公会堂)에서 개최된 「한국고대문화전 - 신라천년의 미(韓國古代文化展-新羅千年の美)」 강연에서 조선의 주자학에 대해 언급하며 종주국보다 뛰어난 우등생 국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교를 낡은 옷으로 비유하고 있다.<sup>25)</sup> 즉 유교는 형식이라는 틀에 얽매인 사상으로 이러한 사회가 지속되는 한 근대화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비합리적인 국가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바사관에 대하여 하타다 타카시는 ‘유교가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유교 내부에서 근대를 지향하는 사상이 생겨나서 실학이라고 하는 다채로운 문화가 성장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는 지적을 하였다. 나아가 ‘조선사회의 정권담당자는 유교를 고수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사상·문화가 탄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통 유교사상으로 만연해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농업 면에서도 시바는 국유토지였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사유토지는 발전하였고 상품작물을 지배하는 농업도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사회 내부의 발전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sup>26)</sup> 또한 하타다의 논리를 바탕으로 다무라 토시유키(田村紀之)는 시바의 봉건제 확립에 대한 일본미화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을 지향하는 역사관이 지배적이고 후쿠다 도쿠조에 의해 이론화된 조선정체론을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바가 양국관계에서 일본의 봉건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과 그 식민지로 전략한 조선과의 갈림길을 주장하고 싶었던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sup>27)</sup>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시바는 청일·러일전쟁이 발발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19세기말·20세기 초기 일본은 국제정세의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안전용 쿠션으로 여기고 있었고, 당시의 문명 속에서 조선은 일본의 생명선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서술을 하고 있다.<sup>28)</sup> 이는 주변국에서 침략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두 전쟁에 대해서

24) 司馬遼太郎(2005) 『坂の上の雲』(一), (株)文芸春秋(新裝版), p.344.

25) 司馬遼太郎(2005) 『司馬遼太郎全講演』第1卷, 朝日新聞, p.495.

26) 旗田巍, 李基東 訳(1983)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pp.99~100.

27) 田村紀之, 김기원 訳(1995.3) 「일본 대중작가 시바 료타로의 한국정체관을 비판한다.」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pp.280~281.

28) 위의 책, 『坂の上の雲』(二), p.263.

국민전쟁, 국가방위전쟁, 제국전쟁이라고 미화시키는 것으로 한국의 비합리화 논리에 중점을 둔 시바사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일본근대초기 지식인층의 대표자로 계몽사상가 후쿠자와의 ‘탈아론’을 근거로 당시 식민사관으로 이용되었던 후쿠다 외의 경제학자의 조선정체론은 패전 후 국민작가인 시바에 의해 부활되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즉 19세기 조선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자주적인 문명화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한 후쿠자와는 조선과 중국을 나쁜 친구로 상정하고 이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급기야 ‘조선멸망론’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런 비문명화 논리가 이후 후쿠다를 비롯한 경제학자에 의해 구체화되어 한일 민족의 혼연일체성과 한국경제의 타율성, 전제주의적 국가체제를 내세우며 비경제화로 둔화된 조선을 일본이 구제하여 문명국가로 탈바꿈시켜야한다는 식민주의사관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패전 이후에도 이러한 논리는 소멸되지 않고 문학자인 시바에 의해 답습되어 조선은 유교라는 지나친 형식주의로 인해 정체된 사회가 지속되었다고 지적하며 결국에는 청일·러일전쟁의 합리화와 한일합방의 정당성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교육학자인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는 이러한 시바사관에 대해 ‘건강한 내셔널리즘, 리얼리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 관료주의의 비판’이라고 역설하며 역사교육개혁의 거점으로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sup>29)</sup> 또한 조국방위전쟁으로 포장된 청일·러일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언덕위의 구름』이 일본국영방송인 NHK에 의해 대하드라마로 편성되어 여과 없이 일반대중들에게 전파하는 등 왜곡적인 일본인의 한국사관은 다양한 통로로 계승되고 있다.<sup>30)</sup>

결론적으로 후쿠자와에서 시바까지 이들이 주장하는 비문명화, 비경제화, 비합리화에 의한 조선정체론은 ‘근대화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전체 시스템 공간 속에서 일방적인 위치관계로서 파악하고자 했던 시도라고 여겨진

29) 藤岡信勝(1996.9) 「司馬史觀と歴史教育」 『中央公論』, 中央公論社, p.192.

30) 『坂の上の雲』는 일본의 NHK에서 ‘스페셜 드라마’로 기획하여 2007년 11월에 촬영을 개시한 이래 2009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총 3부로 나누어 방영되었다.

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상호적이고 복합적으로 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한 진보적 가치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일본 지식인층의 한국사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旗田巍, 李基東 訳(1983) 『日本人의 韓国觀』, 一潮閣, pp.99~100.  
 李万烈(1981) 『韓国近代歴史學의 理解』, 文學과 知性社, pp.275~285.  
 福田徳三(1915) 『經濟學研究』, 同文館, pp.145~147.  
 慶應義塾 編(1960) 『福沢諭吉全集 第10卷』, 岩波書店, pp.238~382.  
 司馬遼太郎(1976) 『歴史の中の日本』, 中央公論新社, p.71.  
 \_\_\_\_\_(1978) 『韓のくに紀行』, 朝日文庫, p.132, p.159.  
 \_\_\_\_\_(1990) 『耽羅紀行』, 朝日文庫, pp.103~107.  
 \_\_\_\_\_(2005) 『坂の上の雲』 (一), (株)文芸春秋(新裝版), p.344.  
 \_\_\_\_\_(2005) 『坂の上の雲』 (二), (株)文芸春秋(新裝版), p.263.  
 \_\_\_\_\_(2005) 『司馬遼太郎全講演』 第1卷, 朝日新聞, p.495.  
 司馬遼太郎 他(1982) 『朝鮮と古代日本文化』, 中公文庫, pp.355~356.  
 \_\_\_\_\_(1987) 『日韓理解への道』, 中公文庫, p.115.  
 旗田巍(1983) 『朝鮮と日本』, 勁草書房, pp.73~75.  
 旗田巍(1973) 「日本人의 韓国觀」 『日本問題』, 일본문제연구소, pp.129~134.  
 姜晉哲(1986.7) 「日帝官學者가 본 韓国史의 停滯性과 그 理論」 『韓國史學』, 精神文化研究院, pp.211~218.  
 \_\_\_\_\_(1987.9) 「停滯性理論 批判」 『韓國史市民講座』, 一潮閣, pp.24~26.  
 田村紀之, 김기원 역(1995.3) 「일본 대중작가 시바 료타로의 한국정체관을 비판한다.」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pp.280~281.  
 四方博(1951.10) 「旧來の朝鮮社會の歴史的 성격について(二)」 『朝鮮學報』, 朝鮮學會, pp.165~168.  
 森谷克己(1964.8) 「朝鮮歷史經過の大要とその諸時代の經濟的社會的構成」 『朝鮮研究』, 日本朝鮮研究所, pp.46~47.  
 青木功一(1981) 「福沢諭吉의 朝鮮人」 『横浜市立大學論叢』, 横浜市立大學, pp.99~100, p.103.  
 姜尚中(1987.2) 「福田徳三의 「朝鮮停滯史觀」 『季刊 三千里』, 三千里社, pp.84~86.  
 藤岡信勝(1996.9) 「司馬史觀と歴史教育」 『中央公論』, 中央公論社, p.192.

논문 투고 일자 : 2015. 12. 30
논문 심사 일자 : 2016. 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6. 2. 4

< 要 旨 >

日本の知識人層による朝鮮停滯論の研究  
—非文明化・非経済化・非合理化を中心に—

李福任

本稿は、日本の近代以後に朝鮮停滯論を主張した知識人達の中で啓蒙思想家である福沢諭吉と経済学者である福田徳三、文学者である司馬遼太郎を社会の各階層を代表する人物として選定し、彼らの理論を非文明化、非経済化、非合理化という視点で考察したものである。

すなわち、日本社会で朝鮮停滯論は福沢諭吉の「脱亜論」を根底にして福田徳三らの経済学者によって具体化されたことである。なお、それが戦後には国民作家と呼ばれる司馬遼太郎によって復活させられたという点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したがって、十九世紀の朝鮮において社会的・経済的に自主的な文明化が不可能であると判断した福沢と福田の理論が文学者である司馬によって踏襲されたことに鑑み、結果的に朝鮮停滯論は日清・日露戦争の合理化と韓日併合の正当化を主張するための理論であったと思われる。このような知識人達の朝鮮停滯論が今まで日本の歴史学者らとマスコミなどを通じて広まっているなど、歪曲的な日本人の韓国史観は様々なルートを通じ継承されているが故に、それに対する継続的な問題意識が必要不可欠であるといえる。

A Study on Chosun Stagnation Theory by Japanese Intellectuals  
—focused on noncivilization, noneconomization, nonrationalization—

Lee, Bok-Lim

This article reviews, in terms of noncivilization, noneconomization and nonrationalization, the logical reasonings by enlightenment philosopher Fukuzawa Yukichi, economist Fukuda Tokuzo and literateur Shiba Ryotaro who have been selected as representatives out of the intellectuals who had advocated Chosun Stagnation Theory after Japan's modernization. In Japanese society, it has been verified that Chosun Stagnation Theory, which had been based on 'the theory of Escape Asia' by Fukuzawa Yukichi and shaped up by economists including Fukuda Tokuzo, had been revived by national author Shiba Ryotaro. That is to say, the reasoning of Fukuzawa and Fukuda that 19<sup>th</sup> century Chosun was unable to get civilized on its own socially as well as economically was delivered to Shiba Ryotaro and resulted in the justification of the rationalization of Qing-Japan war, Russia-Japan war and Korea-Japan annexation. The reasoning of stagnation has been spread by historians and mass media without any filtering and Japanese distorted historical view of Korea has been succeeded.

In conclusion, the Chosun Stagnation Theory by noncivilization, noneconomization and nonrationalization has been a one-sided trial in the whole system and continuous interest in the historical view of Korea by Japanese intellectuals are necessary.